

# 한국 축구 '민망한 8강'



“살았다” 18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컵 한국 대 인도네시아 경기에서 김정우가 첫 골을 넣은 뒤 동료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홈텃세 인도네시아에 1-0 힘겹게 승리 사우디가 바레인 꺾어줘 조 2위 턱걸이



한국 축구가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을 뚫고 힘겹게 8강에 오르는 '자카르타'의 기적을 연출했다.

바레인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베어백호 태극전사들이 2007 아시안컵 공동개최국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둬, 조2위로 8강에 올라 47년만의 아시안컵 축구 정상 도전을 계속하게 됐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본선진출에 실패한 적은 있지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적은 없었던 만큼 이번대회에서도 기적적으로 8강에 올라 최악의 경우는 피하게 됐다.

한국의 기적시리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93년 미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거둔 '도하의 기적'.

하지만 아시안컵에서도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2000년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1차전에서 중국과 비긴 뒤 2차전에서 쿠웨이트에 0-1로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위기에 빠졌다.

3차전 상대는 안도네시아. 한국은 이동국의 헤트트리를 앞세워 3-0으로 승리, 가까스로 와일드 카드를 얻어 8강에 오르는 기적을 이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고, 베어백호는 그때와 '관박이' 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했고, 공교롭게도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로 또 한번 인도네시아를 꺾고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의 8강행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내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바레인에 패한 한

국의 실낱같은 8강행 시나리오에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꺾고, 사우디가 바레인을 꺾어 주면 조2위로 극적인 8강 진출이 가능했고, 꼭 이대로 이뤄졌다.

한국은 18일(한국시간) 오후 7시 20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홈팀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김정우(나고야)의 소중한 선취골을 지켜 1-0으로 승리, 1승1패(승점 4점)로 8강에 진출했다.

베어백호는 조재진(시미즈)을 원톱으로 스피드가 뛰어난 이천수(울산)와 1대1 돌파가 능한 최성국(울산)을 좌우 날개에 배치해 배수의 진을 쳤다.

인도네시아는 비기기만 하면 8강에 오를 수 있어 수비 위주의 기습공격이 예상됐으나 정상적인 플레이를 펼쳐 한국축구가 기사회생하는데 도움을 줬다.

좌우 측면 돌파를 살린 한국축구는 전반 여러 차례 찬스를 맞으며 인도네시아 골문을 두드려다 34분 이천수가 중앙수비수들을 제치고 찰라준 공을 김정우(나고야)가 오른 발 중거리 슛을 날려 결승골을 터뜨렸다.

같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네시아 팔렘방 경기장에서 바레인을 2-0으로 몰아부쳐 태극전사들의 8강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가 확실해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들어 이천수와 최성국의 좌우 돌파에 이른 센터링으로 인도네시아 골문을 노렸으나 더 이상 추가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2승1무·승점 7점)가 바레인을 4-0으로 크게 이겨 한국은 기적적으로 8강행을 결정지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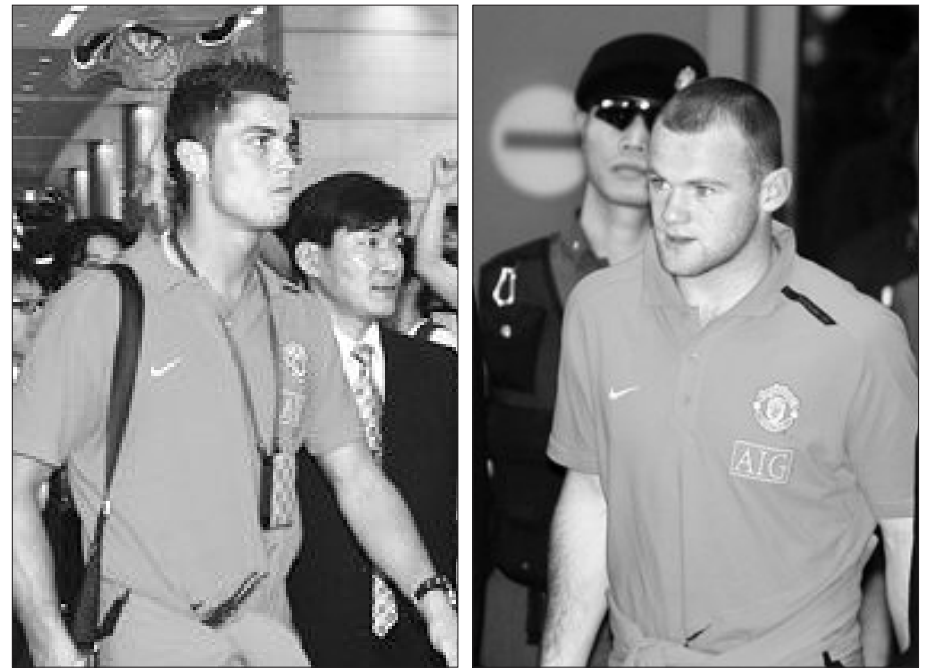
### 삼성, 첼시에 0-1 패 월드시리즈 오브 풋볼

프로축구 K-리그 명가 수원 삼성이 특급스타들로 무장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에 한 골차로 패했다.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18일 낮이

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 홈디포센터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오브 풋볼 2007' 1차전 첼시와 친선경기에서 후반 35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디에고 드로그바에게 결승골을 내줘 0-1로 무릎을 꿇었다.

2005년 5월 홈에서 0-1로 진 빚을 갚았던 수원원은 강인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K-리그의 매운맛을 보여줬지만 천문학적 몸값의 스타들이 즐비한 첼시의 벽을 넘진 못했다.



아시아투어에 나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와 웨인 루니가 1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웰컴 맨유”

### 팬 300여명 공항서 입국 환영

‘축구중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18일 축구팬의 열렬한 환영 속에 입국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맨유 선수단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올 여름 아시아투어에 나서고 있는 맨유는 지난 17일 일본에서 J-리그 우라와 레즈와 친선경기에 이어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FC 서울과 대결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입국장을 빠져나온 인물은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알렉스 퍼거슨 감독.

이어 폴 스콜스, 웨인 루니, 에드윈 판데사르, 라이언 깁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 퍼디난드 등 2006-2007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주역들이 맨유를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에 감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하나 둘씩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또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새로 맨유 유니폼을 입게 된 오언 하그리브스와 나니 등도 기존 선수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에 오른 특급 스타들이 방한하자 인천국제공항은 온통 환영 일색이었다.

축구팬 300여명은 이들이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공항에 도착해 진을 쳤고 선수단이 하나 둘 입국하자 북을 치고 응원가와 구호를 외치며 TV로만 보던 스타들을 눈 앞에서 지켜보는 감격에 젖었다.

취재진도 100여명이 몰려 맨유의 방한 열기를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히 뛰어다녔다.

21일 출국해 마카오와 중국 광저우에서 2차례 친선경기를 더 치르고 아시아투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맨유 오고 싶다면 박지성처럼 단계 밟아야”

#### ■ 퍼거슨 감독 일본서 회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오고 싶다면 박지성처럼 단계를 밟아야 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일본에서 박지성(26)의 성공 사례를 특별히 소개했다.

맨유는 17일 사이타마에서 일본 J리그 챔피언 우라와 레즈와 2-2로 비겼다.

18일 AFP통신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은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맨유가 더 많은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국 리그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를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박지성은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에서 우리 팀으로 왔다. 박지성은 맨유에 오기 전부터 유럽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다른 아시아 선수들도 이런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퍼거슨 감독이 한국 축구에 라이벌 의식이 강한 일본에서 박지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맨유에는 현재 박지성 외에 중국 신예 공격수 덩광저우가 뛰고 있다.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 권입선별 조식 허리디스크  
가장 효과적인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프로그램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일렉오’ 장치의선 열효율난방이 핵심입니다.

TEL: 10621262-0101

**자격을 인정받은 보성학교 공부하는 새마을 장학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수강문의 : 1588-7509(취업공부)

http://og.jiang.co.kr

**og.jiang.co.kr**

**jiang**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